이번주 도내 건설시장 '큰장' 선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등 11건 2622억 규모 공사 발주 예정
올해 누적 발주액 웃도는 액수
이중 지역제한 공사는 5억여원뿐
대부분 대형 외지업체 낙찰 예상

이번 주 전북지역에 올해 최대 물량의 관급 토목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 물량이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이 권장사항이어서 또 다시 대형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북조달청에 따르면 금주(4월 3~7일)에 한국농어촌공사 수요의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7-1공구 조성공사' 등 11건, 2,622억원의 공사가 도내에서 발주될 예정이다.

이는 전국 4,490억원의 58%가 넘을 정도이자 지난 3개월 전북의 누적 발주액을 웃도는 액수이다.

그러나 이 중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공사는 5억2,700만원 뿐이다.

실제로는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7-1공구(770억600만원 추정가격), 2공구(473억8,600만원) 및 만경6공구(731억5,900만원), 바이오작물시범생산단지 조성공사(344억7,700만원)와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 1공구(296억1,800만원) 등 5개 공구가 2,616억4,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새만금지구 4개 공구에는 외지 1군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실적 및 PQ(적격심사)를 종합심사하는 방법과 함께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마저 권장사항으로 발주되는 이유로 규모가 작고 실적이 적은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종합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1군 업체는 능력이 되는 지역업체를 찾고, 실적이 열악한 도내 업체들은 치열한 눈치싸움으로 1군 업체와 짝지어지기를 원하고 있어 미스매칭이 심하다"면서 "이번에 지역업체 참여율은 약 10% 정도면 '성공'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사업 1공구의 경우 적격심사로 발주될 뿐만 아니라 비교적 규모가 작아 체면상 1군 업체들이 나서지는 않는다는 전망이다.

때문에 이곳에 참여할 예정인 2~3군 업체들과 공동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업체들의 정보싸움과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다는 설명.

결국, 4월 첫째 주 대부분의 공사는 타지역 업체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짙어졌고, 도내 업체들의 참여율은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10~20% 정도의 수주만으로도 도내 업체들은 만족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번주까지 포함해 올해 전북지역 관급공사 발주 누계액은 5,176억원이며, 이 중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로 발주된 금액은 998억원에 그친다.

/황성조기자 · food2drink@

한국은행 '경제야 놀자' - 온디맨드 경제

'수요자 맞춤 서비스' 도내 업계도 필요

명절이 되면 특선영화를 보기 위해서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다. 영화를 보고싶으면 극장에 가거나 비디오가게에 가야했던 그 시절에 명절 영화 상영시간이 나와있는 티비편성표는 주요 일간지마다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였다.

하지만 요즘에는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통해 자택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다.

과거처럼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편성시간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골라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온디맨드 경제란 수요자가 원할 때 개인화된 요구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수요중심의 비즈니스를 의미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거래비용이나 정보탐색 비용이 줄어들면서 온디맨드 경제에서는 거래를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가 주도하게 된다. 음식점어플, 대출, 의료서비스, 차량제공, 법률자문, 연구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리무진 연계업체 우버와 숙박 알선 플랫폼을 제공하는 에어비앤비가 있다. 이들 업체는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기능을 담당하면서 급성장했다.

우버의 연간 매출은 50개국 이상에서 55억달러에 이른다고 하며, 에어비앤비는 이미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숙소를 검색하는 필수 선택지로 자리매김했다.

온디맨드 경제는 공유경제나 O2O(Online to Offline)등의 개념과 함께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잉여자원을 활용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는 반면 온디맨드 경제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공급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개념이다.

또한 O2O는 온라인으로 주문 및 결제 등이 이루어지고 오프라인에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온디맨드 경제에서는 온라인에 한정해서만 주문 및 결제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다만 공유경제, O2O, 온디맨드 이코노미는 모두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다.

전북의 도소매, 숙박, 관광 등 서비스 업체들은 온디맨드 경제의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들의 차별화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앞으로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임성용 전북본부 과장

홈플러스, 게이밍 키보드 · 마우스 할인 판매 지난달 31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이 게이밍 키보드 · 마우스 세트(DRAKAN GS100)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자사 판매량 1위를 기록 중인 DRAKAN 게이밍플러저키보드(GK1) 및 게이밍마우스(GM1)를 세트로 묶어 온라인 최저가보다 30% 이상 저렴한 1만99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창립 30주년 맞은 제일건설 직원 · 가족 참여 기념행사

'전북 제1 주택건설명가' 제일건설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31일 익산시 백제웨딩문화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988년에 설립된 제일건설은 전북과 수도권, 충청지역에 3만여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해 왔다.

제일건설 직원과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는 직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 금관 5중주 공연, 마술쇼 등도 펼쳐졌다.

윤여웅 대표이사는 "제일건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로 성장 할 수 있었던 힘은 지역주민의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사회공헌활동과 맞춤형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날 전라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등에 1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한편, 올해도 3,000여 세대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인 제일건설은 헌혈 캠페인 동참, 저소득층 노후화된 집 수리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황성조기자 · food2drink@

불법 금융투자업체 수법 '더 교묘'

작년 적발건수 209건
전년대비 58.3% 감소
모바일 상위법 변모

지난해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수법은 더욱 교묘해져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 · 카페 · 블로그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건을 적발했다.

수사기간에 통보(43건)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183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5년 대비 58.3% 감소한 것으로 지속적인 적발 · 조치 노력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법은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는 등 교묘화 되는 추세로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쉽지 속지 않도록 주요 적발 내용에 따른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계속적인 근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전 대상 금융회사가 정식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비정상적인 방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는 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및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박세린기자 · iceblue@

2월 도내 산업생산 '훈풍' … 광공업생산지수 12.7% 증가

운송장비 · 기록매체 감소 불구
자동차 · 화학제품 증가 주요인

2월 전북지역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31일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지수는 96.6으로 전년동월(85.7)에 비해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운송장비, 의복 및 모피, 인쇄 및 기록매체 등은 감소했으나 자동차, 식료품,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내 주력 업종인 자동차는 30.5% 증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햄, 전분 등의 식료품(18.4%), 살충제, 에폭시수지 등 화학제품(6.5%)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출하도 전년동월비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의복 및 모피 등은 감소했으나 자동차, 식료품,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비 10.5% 늘었다.

출하 역시 조향장치, 소형트럭, 대형버스 등의 자동차가 32.1%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식료품(10.9%), 화학제품(8.9%) 등 순으로 조사됐다.

2월 도내 생산자제품 재고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전기장비, 종이제품, 금속가공 등은 증가했으나 1차 금속,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비 10.5% 감소했다.

1차 금속(-19.2%)은 봉강, 블룸, 알루미늄 합금괴가 감소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16.6%)는 RV승용차, 중형승용차, 중형트럭이 감소했고, 화학제품(-10.2%)은 선형폴리에스터수지, 살충제, 제초제가 줄었다.

반면, 축전지, 통신선, 광섬유케이블 등 전기장비(60.9%)는 증가했고, 위생용원지, 골판지원지, 신문용지 등 종이제품(6.1%), 새시문 및 창틀 등 금속가공(0.5%)은 각각 증가했다.

이 기간, 제조업 재고율지수는 107.4로 전월대비 증가했다.

한편, 2월 전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2.5로 전년동월비 22.7%나 감소했다.

오락 · 취미 · 경기용품(-43.6%), 화장품(-26.0%), 음식료품(-24.9%) 등은 감소했고, 증가품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세린기자 · iceblue@

이스타항공, 8월 출발 '얼리버드 특가 행사'

군산-제주 편도 1만6900원부터

이스타항공이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8월 출발하는 얼리버드 항공권을 특가 판매한다.

얼리버드 이벤트는 탑승기간 4개월 전 찾아오는 특가 행사로, 매달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정기 이벤트다.

이번 이벤트에서 국내선 4개 노선은 편도 총액 최저운임 기준 △김포-제주 2만900원 △청주-제주 △군산-제주 △부산-제주 등 3개 노선은 1만6900원부터 제공된다.

인천 및 김포 출발 국제선의 경우 편도 총액 △인천-나리타(도쿄) 8만4100원 △인천-간사이(오사카) 7만9100원 △인천-후쿠오카 7만9100원 △인천-오키나와 10만9100원 △김포-송산(타이베이) 11만4100원 △인천-타오위엔(타이베이) 10만4100원 △인천-홍콩 11만4100원 △인천-방콕 16만700원 △인천-코타키나발루 15만9100원부터 판매된다.

탑승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한 달이며, 예매는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및 웹에서 가능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여름휴가를 미리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안성맞춤 이벤트"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성수기 기간 항공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수기자 · ssyang0117@

삼성 "갤럭시S8 예약판매, 노트7 40만대 넘긴다" … 판촉 공세

전국 4000곳서 체험행사 진행
40만원 상당 사은혜택도 제공

이제 예약판매다. 차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을 성공적으로 공개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제품 판매에 돌입한다. 경쟁작은 물론 자사 전작의 흥행 성적까지 깨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3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미 전날 오전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지하 대형 매장인 딜라이트관에서 갤럭시S8 체험 코너를 개장했다. 미국 뉴욕에서 제품을 공개한 지 한나절만이었다.

삼성전자는 딜라이트관 중앙 진열대에 갤럭시S8 10여대를 올려두고 인공지능(AI) 가상비서 '빅스비'와 베젤리스(Bezelless) 화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삼성 직원들까지 갤럭시S8을 직접 만져보기 위해 딜라이트관을 찾았다. 종일 붐빌 정도로 체험 코너의 인기가 좋았고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릴 정도로 현장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삼성전자는 전날 서울 강북 지역의 대표적 매장인 광화문 KT 본사 1층의 KT 스퀘어에서도 갤럭시S8 체험 코너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체험 코너 설치를 차례로 확대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서비스센터,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등 전국 4000여곳에서 갤럭시S8 체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7일부터 17일까지 11일 동안 갤럭시S8을 예약 판매하는데, 지난해 8월 6~18일 13일 동안 갤럭시노트7을 40만대 이상 예약 판매한 것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출시가 보류된 메이플 골드를 제외하고, 총 4가지 색상 가운데 오키드 그레이가 가장 큰 관심을 끌면서 해당 색상이 품귀 현상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갤럭시노트7의 3가지 색상 중에는 블루 코랄에 예약 구매자의 50% 이상이 몰려 정식 출시 후에도 개통이 한참 지연되는 보기 드문 소동이 벌어졌다.

작년을 능가하는 예약판매 실적을 기대하는 것은 갤럭시S 시리즈의 소비자층이 노트 시리즈보다 두텁기 때문이다. 갤럭시노트7 단종 이후 프리미엄폰 대기 수요도 상당히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다채로운 예약 구매 사은품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8 64GB 모델을 예약 구매하면 9만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레벨박스)를 사은품으로 준다. 128GB 모델을 예약 구매하면 이번에 공개한 덱스와 레벨박스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또 모델과 상관없이 액정 수리비 1회 50%, 정품 액세서리 5만원 할인권, 리니지2 레볼루션 아이템, 유튜브 레드 3개월 이용권 등도 제공한다.

이런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총 40만원 안팎으로, 19만8000원 상당의 기어핏2, 삼성페이 이벤트몰 10만원 할인쿠폰, 액정 수리비 1회 50% 등을 제공한 갤럭시노트7 예약판매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연합뉴스

/편집=김원형기자 · kims7942@

'전북기능경기대회' 5일부터 6일간 열려

전북 기능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2007년 제47회 전북기능경기대회'가 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6일간 전주공고 등 도내 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폴리메카닉스 등 39개 직종(한지공예, 부채 만들기 등 지역특성화 직종 2개 포함) 총 401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입상자는 소정의 상금 지급과 함께 해당 직종의 기능사 시험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도 대표로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올해도 지방기능경기대회 명장, 전국대회 심사위원 및 타 지역 기능인 등이 기술위원으로 참여한다"며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대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수기자 · ssyang0117@

캠코, 도내 압류재산 23건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전북본부는 3일부터 5일까지 도 소재 재산 약 25억원 규모, 총 23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주요 공매물건은 익산 중앙동 소재 근린생활시설로 감정가는 약 5억4100만원, 매각예정가격은 약 3억2500만원이다. 공매 참여 시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세린기자 · iceblue@